



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독자 여러분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 
이번 달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닭고기 만두를 빚어보세요. 만두 소로 돼지고기가 아닌 닭고기를 넣어 담백함이 배가 된답니다. 만두만 먹는 게 허전하다면 떡을 함께 넣은 떡만둣국도 좋겠죠?

